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5회 전국학술대회

주 최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후 원 단국대학교 · 한국연구재단

확장하는 경계, 공존의 장



: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

일시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13:00-17:40

장소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내 강의실

개회사(14:20~14:30) **김수복**(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제 1 부(13:00~14:00) 사회 **최수웅**(단국대)

제3회 단국대학교
학부·대학원생 분단, 통일
관련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휴식 (14:00~14:20)

제 2 부(14:30~17:40) 사회 **박덕규**(단국대)

기조발제

박태상(한국방송통신대 대전·충남지역대학 학장)

김정은의 홀로사기와 '최초단 돌파'의 고제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임옥규(단국대) **토론** 박미영(백석대)

1950년대 북한의 부르주아 문학담론

발표 한상연(한양대) **토론** 정영권(단국대)

박학의 삶과 영화 활동 연구

발표 홍지석(단국대) **토론** 신수경(명지대)

프롤레타리아 미학과 부르주아 미학

발표 강상대(단국대) **토론** 김미진(단국대)

북한지역의 녹색부인 서사 연구

종합토론(17:20~17:40)

냉전 시대에 남한의 예술은 국가의 정책과 검열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해 왔고,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예술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는 회복되었지만, 오랜 기간 예술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북한의 예술은 시작부터 정치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었으며, 1960년대 후반 유일체제 확립,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더욱 더 경직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북한 문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남북한 문예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꿈꿀 수는 없는 걸까? 본 학술대회는 광복·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의 마지막 달에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주 소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205·206호
전 화 041)550-3798

홈페이지 <http://dkcti.org>



한국문화기술연구소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